

#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 찾아가는 팔순·구순 생신잔치



예로부터 팔순·구순 잔치는 한 개인의 생일을 넘어 마을 전체의 경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가족과 마을 이웃들이 함께 오랜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의 생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날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지요.

우리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생일에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신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분들에게 어떤 생일을 보내고 싶으신지 묻고, 각자의 바람을 담아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팔순과 구순을 맞이한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각 가정과 복지관에서 팔순·구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생신상과 케이크, 축하 인사를 통해 함께 축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이날을 위해 곱게 보관해두었던 정장을 입고 오시기도 하셨는데요. 멋지게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받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뜻깊은 잔치를 복지관에서 함께 준비하고 축하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팔순을 맞으신 어르신은 구순까지, 구순을 맞으신 어르신은 백수까지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어린이날!

### 더드림카페 어린이날 이벤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복지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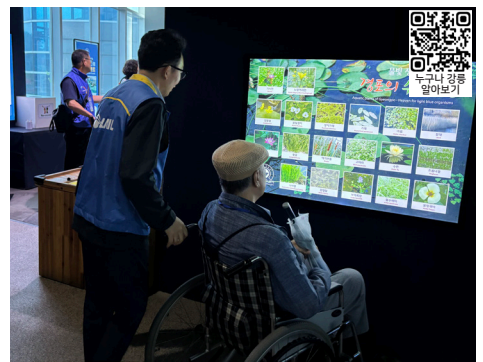
이 날 복지관 1층 더드림카페에서는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로 복지관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슬러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시원한 슬러시 한 잔과 깜짝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환한 미소로 어린이날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어린이날의 즐거움 추억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작은 이벤트였지만, 이 날의 설렘과 기쁨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남기를 바랍니다.





# 기차 타고 떠난 특별한 하루, 강릉

## 상반기 동대문구 바깥 나들이 '동구밖'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지난 5월 21일, 2026년 상반기 동대문구 바깥 나들이 '동구밖'을 다녀왔습니다.

'동구밖'은 외부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경험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나들이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나들이의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한국철도공사 청량리전동차 승무사업소의 사회공헌사업 '해피트레인'과 연계해 진행되었습니다. KTX 승차권 후원과

함께 '사랑의 기적소리 봉사회'의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동행이 더해져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참여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강릉을 찾았습니다. 오죽헌과 화적박물관을 둘러보고, 아쿠아리움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들러 여유를 즐기며 강릉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사업 '누구나 강릉'과도 연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나들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를,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변화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 더운 여름, 잠시 쉬어가세요

### 복지관 북카페, 무더위쉼터 운영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관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복지관 1층 북카페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장애인과 에너지

취약계층은 물론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시원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주민들이 쉽게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안내물을 부착했습니다. 우리 복지관 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인 다른 공공·민간 시설들도 있는데요.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더드림 북카페.

무더위쉼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안전디딤돌' 앱이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 불편함을 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며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복지동향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

발달장애인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아직 이들이 투표에 제대로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투표소 환경에서 오는 긴장감, 복잡한 선거 공보물과 어려운 공약, 실제 투표 과정에서 오는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이번 5월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사전투표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편지를 전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활동가들과 장애계는 ▲공약을 쉽게 풀어쓰기 쉬운 공보물 제공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 도입 ▲투표 보조인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2022년과 2023년 국가를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발달장애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발달장애인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제1회 장애인복지관의 날’ 개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난 5월 26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제1회 장애인복지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날’은 지난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공식 선포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전국 258개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서비스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고령장애인 통합돌봄의 시작!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애인 역시 노년기를 맞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애와 노화가 함께 찾아오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우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고령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 상영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고령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60여 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 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장애인들과 든든히 동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오동통대학, 선거 참여

오동통대학 참여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선거가 왜 필요한지부터, 우리 동네 후보자 살펴보기, 투표 과정 익히기, AAC를 활용한 모의선거참여 등 다양한 선거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일 첫날인 5월 29일, 실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이번 경험이 참여자들이 참정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실천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오동통대학 참여자들.

## 편집자의 말 |

이번 달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지관’을 미션으로 삼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복지관의 일은 결국 동행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기본 날을 함께 축하하고, 새로운 경험에 함께 설레고, 어려움 앞에서는 곁을 지키며, 자신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일 말입니다.

이번 달에도 복지관에는 다양한 동행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팔순과 구순을 맞은 어르신의 삶을 함께 축하했고,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강릉으로 떠난 나들이에서는 참여자와 자원봉사자, 공공기관이 함께 여행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선거를 배우고 참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웹진을 통해 그 동행의 기쁨과 경험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